

뱃켄에서의 생활 나눔

올 4월에 저의 집에 온 제비 한 쌍이 알까기한 네 마리 새끼가 자라서 비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월 15일 주일 예배 후 저희를 방문한 손님들과 뱃켄 끝지역까지 돌아보고 집에 저녁 7시쯤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깊이가 있는 빨간 바케스에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제비 새끼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케스 안에 물이 약간 있어서 깃털과 양쪽 날개가 젖어서 날지 못했습니다. 물이 많았으면 제비는 익사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새끼제비의 배쪽은 하얀색이고 부리부터 꼬리까지 광택나는 검은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끼가 날기 연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끼 제비의 양쪽 검은 날개와 배쪽 솜털을 닦아주고, 혹시 날을 수 있을까 해서 손위에 제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제비는 힘을 주어 날기 시작했지만, 약 10미터에서 주저 앉았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젖은 부위를 말려 주었습니다.

다시 제비가 날아가 제비 집 가까이에 있는 대문을 고정하기 위한 철사 줄에 앉았습니다. 제비의 짹짹 크고 날카롭게 우는 소리에 제비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물에 빠진 제비가 엄마아빠 제비의 돌봄 속에 있으니 안심되었습니다.

살아난 새끼제비가 내년에 박씨를 물고 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2025. 6. 30.

뱃켄에서 홍방규 이들꽃 드립니다.